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ek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2-3학년 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강현석 장로 2부/곽태일 장로 3부/박원규 집사 4부/전영석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4:6-7 All together 다같이
4부/로마서 1:15-16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20) 생명 지켜내기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시월의 마지막날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찬483/539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기도 할 수 있는데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나이 든 증거 Proof of Ag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얼마 전, 부친과 동향 분을 만났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 참 반가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고향에 한 번 가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사극에 유배를 보내는 지역으로 등장하는 작은 섬인데, 날씨가 좋으면 이북 땅도 저 멀리 보이는 곳입니다. 당시는 강화도 외포리에서 통통배를 타고 6-7시간 정도 가야 하는 곳이었어서, 엄청 뱃멀미하며 힘들게 갔던 경험 때문에 또 가보지는 못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제는 그 섬까지 다리가 놓였다고 하니, 한국에 가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버님의 6주기를 맞이하면서 그때 상황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버님은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일 새벽에 소찬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새벽에 잠시 눈 감은 아버지를 뵈고, 슬퍼할 여유 없이 교회로 돌아와 주일예배 1-3부 설교를 하며 예배를 인도했고, 그날 아버지의 첫 손주인 큰딸 소원이는 헌금 특송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울음을 참아가며 찬양하던 딸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예배 후 실행위원회 회의까지 하고, 또 그날 저녁에 있었던 프누마 찬양의 밤까지 참석하고 몸의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하루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셨는데, 하필 주일에 돌아가셔서 나를 정신없게 하셨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님이 주중에 돌아가셨으면 저는 아마 주일 준비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목사 아들이 당신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뛰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람이 아버지나 고향 생각이 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말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 생각에 한 번밖에 가보지 않은 아버지 고향엘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솔직히 아버지가 자란 곳보다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그리웁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교우들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며 보냈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자꾸 그려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거듭난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우는 죄의 문제들이 있고,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오늘 삶의 현상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열망과 말씀의 가이드라인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천국 갈 마음도 없을뿐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나이들은 증거는 여기 저기 나타나는데, 천국 백성 된 증거는 과연 있는지 자꾸 더듬게 됩니다.

Not too long ago, I met someone who grew up with my father. This was a rare occurrence, and I was very pleasantly surprised. I remember visiting my father's hometown just once. It's a small island that comes up in historical TV dramas as place for exiles. When weather is clear, you can even see North Korea in the distance. When we visited, we took a small boat from Uepori, Kanghwado, and traveled for about 6-7 hours. Because of my experience with horrible seasickness, I never went back before immigrating to U.S. I heard that now they have built a bridge to the island. I think I should visit there when I'm in Korea.

Last week was 6th anniversary of my father's passing. I was reminded of that day. He passed away early Sunday morning. I was home all day Saturday preparing for Lord's Day, and I was notified of his passing early Sunday morning. I went to see him briefly early Sunday morning with his eyes closed. With little time to be sad, I returned to church and preached 1st -3rd services. My oldest daughter, his first granddaughter, Sowon sang an offering song that Sunday. I vividly remember her fighting back tears as she sang. I remember returning home exhausted with no strength after holding an executive committee meeting and attending Pneuma Praise worship that evening. My father always prayed for my ministry. I wondered why he died on a Sunday and made things more chaotic for me. Now when I think back, if he had died on a weekday, I may not have been able to prepare for Lord's Day. My tears roll down as I think about his thoughtfulness to keep me, his pastor son, busy and not giving me a chance to be sad.

I think it's correct to say that reminiscing about their father and hometown is proof of aging. I want to go to my father's hometown, where I have been to only once. Although I don't really long for where my father grew up, but I do long for heaven where he is. I keep imagining in my mind of the place where we've sent so many of our loved ones ahead. I'm even thinking about repeating the series on Revelation. However, heaven is a kingdom that can only be entered when you are born again by the Spirit and Water. To be born again does not mean that you have become a perfect person. However, there are clear signs for those that have been born again. Daily battles with sin and our struggles toward holiness are our proof. Those that do not have the passion to live by God's will and obey guidelines of the Word do not have the desire to go to heaven, nor can they even enter. Nowadays, proof of my aging shows up here and there, and I often reach out to touch for proof of my heavenly citizenship.

빌립보서 강해 -제20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생명 지켜내기

(빌 4:6-7)

1. 사도바울도 '염려'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한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참고/ 고후 11:28, 빌 2:20, 마 6:30)

적용하기



2. 6-7절 말씀에서 살피 볼 수 있는 교훈을 아래에 정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 봅시다.

1) _____ (6절)

2) _____ (6절, 참고/ 고전 10:13, 롬 8:28)

3) _____ (7절, 참고/ 잠 4:23)

3.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까?(7절) 오늘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참고/ 사 53:5, 요 14:27)

특별기획 - 추수 감사 축제(2)

함께 하면 알지요 웃음 바이러스~~

비율 공동체



2018 추수감사 축제, 서너 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짧지 않은 5주 동안 함께 연습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행사 때 부를 찬양악보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작곡하신 분에게 직접 이메일을 드렸더니, 즉시 악보를 무료로 보내 주셨던 작곡가 선생님의 친절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가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때 사진들을 다시 열어 보며 주님과 동행에 참여하는 기쁨을 이번에도 많은 베델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지원 집사

축제 준비 첫 모임에서 너무 적은 인원이 모이자 목사님의 제안으로 기도회가 열렸고 그 결과, 발표회 당일 무대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이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이로 만든 필그림 의상이 얼마나 멋지던지 감탄이 절로 나왔고,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고자 십자가를 만들고 그 형상을 붙들고 뛰다가 무릎 꿇은 장로님의 눈물은 연습 중에 넘치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가신 김 집사님께서 한국 출장 중에도 축제 연습하는 동영상 보내 달라고 하셔서 연습 일지를 기록하여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이번에도 하늘에서 이 축제 보실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

의 마음에 추수 감사절의 의미가 되살아 나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공동체와 함께 넘쳐나는 감사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경희 권사

요한 공동체



습관적인 찬양이 아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시편 말씀처럼 준비한 모든 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뱃놀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골판지로 멋진 배를 만들고, 베델 제단에 임하는 성령의 불을 표현하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집사님들의 불타는 액션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지요. 매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준비하며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성도의 사명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김병주 장로

평권으로 분한 강문구 목사님의 거울 연기와 김혜영 권사님의 우아한 여왕 연기는 그야말로 명품이었습니다. 며칠밤을 고민하며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만들어진 기획과 대본을 토대로 각 소품을 만들며 최선의 작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 연습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오늘, 그 추억을 마중물 삼아 2021년 추수 감사 축제가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베델의 잔치가 되도록

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집사

JM(일본어 예배) 공동체



춤추는 배경음악에 맞추려고 준비했던 옷의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밝아서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팀워크라고 말하지만, 어려웠던 춤을 함께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 있던 격려와 그 구심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발표회 이후, 우리가 준비했던 춤으로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더 가지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다무라 고조 장로

처음 참석한 추수 감사절 발표회에서의 댄스는 저의 짝을 만나게 해 준, 영원히 잊지 못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용주 목사님과 고바야시 팀장님이 쓰신 가발이 인상적이었고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형형색색의 의상을 골라 입고 열심히 연습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추수감사 축제 발표회 연습을 통해 참여한 모두가 하나 된 것이 매우 좋았는데 축제 이후에도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료코 이시야마 집사

셀목자 간증

셀목자는 축복의 꽃받침



올해 초, 오랫동안 셀식구로 있었던 셀에서 분가했습니다. 이미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셀식구 일때의 마음가짐과 셀목자로서의 마음가짐은 달랐기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셀들은 어떻게 꾸려 나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던 중 은혜 목장 셀목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셀목자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노하우도 전수받



고 또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셀목자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셀은 셀목자 뿐만 아니라 셀식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이번 셀목자 모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고민할 시간에 셀식구들 한명 한명 기억하며 기도로 섬길 것을 다짐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매주 셀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는 우리 셋째 네 식구들, 사랑합니다♡

김정원 집사(셋째4셀 목자)

지난 토요일 아침 헵시바 기도예배 후에 진행된 은혜목장의 셀목자 모임의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팬데믹

으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귀한 섬김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초원 지기님을 비롯하여 우리 초원에 속한 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늘 우리 목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김홍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봉운 집사(다윗셀 목자)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장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2. 셀목자들이 성령충만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셀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쉽을 주옵소서!
3. 셀모임을 통해 셀식구들이 주일 말씀의 결단을 나누며 삶의 변화와 거룩을 향한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4. 개인적 구원을 넘어 공동체로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예수야 영상보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팬데믹이 시작된 후 한어 중고등부(CIM) 예배의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찬양팀 선생님으로서 단연 '찬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찬양팀과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찬양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상황에도 섬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고, 영상 녹화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선정되었

던 찬양이 바로 이번 '예. 수. 아'의 첫 번째 곡인 "내 이름 아시죠"였습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무엇보다 현장 예배를 언제 다시 드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시기에 이 찬양은 저에게, 또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말하지 않아도 모든 생각을 아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피아노 반주로 섬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에 제 마음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던 첫 주, 현장에서 피아노와 베이스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두 형제를 Zoom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팬데

믹 후 첫 연습에 나가 오랜만에 접한 건반과 채플은 낯설었지만, 정말 잘 왔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경험이었습니다. 내 삶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고, 또 떠나시지 않는 주님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려던 것에 대해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조수민 형제(CIM, 교사)



특별기획-성경이 말하는 건강(3)



음식 섭취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29-30)

첫째, 탄수화물(설탕과 아이스크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근대 의학 잡지에 치매를 제3의 당뇨병(Type 3 Diabetes) 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모든 모세혈관을 상하게 함으로 뇌, 눈 그리고 신장에 병을 일으킵니다. 알칼리성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nuts)와 모든 Berries (blue berry)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있으니 모든 채소와 과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곡식과 과일에는 장에 해로운 단백질 Gluten과 Lectins 이 있어 밀, 보리, 호밀, 토마토, 오이, 가지 등을 잘 요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압력솥(pressure cooker)에 끓임으로 제거됩니다. 생선은 등 푸른 작은 생선(고등어, 꽁치, 멸치 등이 좋고, 큰 고기는 수은(Mercury)이 들어 있어 아이들과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여야 하는데(창 1:30)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오염된 사료와 항생제로 키워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Olive oil, fish oil, coconut oil 등)을 추천합니다.

미세 영양분(Micronutrients)으로 건강 식품점에서 항산화제(Antioxidant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물질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입니다. 우리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또한 산소 때문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역설(Oxygen Paradox)이라고 합니다. 고철이 산화 작용으로 녹이 슬듯이 산소로 인해 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로 인해 생기는 활성 산소를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지만 외부 환경으로부터

좋은 선택과 나쁜 습관

더 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위 항산화제라는 영양제를 먹게 됩니다. 여기에는 14가지 비타민과 25종류의 광물질 그리고 10,000가지 이상의 식물성 영양 물질(Phytochemicals)이 있습니다. 활성 산소(Free Radical)를 일으키는 원인과 항산화제(Antioxidants)의 종류가 많으니 Google 혹은 You Tube를 통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음식과 정신적 육체적 운동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은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스 8:23)

가끔 금식하는 것(intermittent fasting)도 좋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할 때, 그리고 계절에 따라 금식합니다. 사실은 금식이 의학적으로도 유익합니다. 금식함으로 몸에 축적된 지방질을 소모함으로써 생기는 Ketone 이란 부산물이 우리 뇌에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되어 금식할 때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이 두 끼만 먹습니다. 남미 선교할 때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을 보고 식생활을 알아보니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음식 섭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exercise)입니다. 창세기 3:19절 말씀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였는데 지금은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 과잉섭취로 인해 올라간 칼로리(Calorie)를 완전히 소모시키지 못해 몸에 불순물이 남아 있어 병을 일으킵니다. 운동하게 되면 혈당도 내려가고 우리 뇌에 기억을 보존하는 해마(Hippocampus)도 커진다고 합니다. 미국 피고용인들이 하루 평균 7.7-15시간을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Mayo Clinic and th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의하면 3-4시간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만큼 피우는 것과 같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TV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요즘 주의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못 해도 걸어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어가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어 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전체 골격과 근육의 절반이 두 다리에 있으며 일생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의 70%를 두 다리에서 소모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보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세와 걸음걸이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독서, 성경 통독, QT, 성도들과의 교제, 셀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강민 전도사(병리학 전문의)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서찬석 목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광고

2021 목장별 추수 감사 축제

할렐루야! 길고도 힘들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베델교회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아니,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신 16:15)' 말씀과 같이 온 성도가 추수 감사 주일에 모여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는 베델 성전 설립 45주년으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오후 4시, 추수감사축제에 각자 감사 제목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강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 5:18)' 2년여의 어려웠던 시간을 겪으며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여정이 반드시 있었기에, 저희는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부활한 이번 추수 감사축제는 목장별로 준비된 멋진 공연으로 성전을 뜨거운 감동과 웃음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또한 공연 후에는 온 교우들에게 터키 만찬이 준비됩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베델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수 감사절의 넉넉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온전한 추수 감사축제가 되도록 수고하시는 각 목장과 이를 위해 교회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사역팀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축제를 위해 물질(선물, 후원금)과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 일시/장소: 11월 21일(주일) 오후 4시, 본당
- ▶ 참가 목장: 믿음, 소망, 사랑, 은혜, 화평, 예살, JM (목장별 공연 시간: 4-5분)
- ▶ 순서: 1부-가족사진 촬영(코트 야드)
 2부-목장별 추수 감사축제 및 선물 추첨(본당)
 3부-터키 만찬 및 선물 추첨(코트 야드)
- ▶ 도네이션 문의: 우성무 집사 (714)713-5888
- *본당 앞 부스에서 함께 나눔 선물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7:	①부-김건성	②부-김건수	③부-김명수	④부-하현정
	11/14:	①부-권순열	②부-정광목	③부-김귀성	④부-홍승우
	11/21:	①부-김교식	②부-김동수	③부-김근수	④부-니승호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1월)	11/6:	김언조	강영범	김동균	김유호
강단꽃(10,11월)	10/31:	박정현, 정경애	11/7: 강하림, 김영신, 홍성아	11/14: 김교식, 김진환, 이주은	11/21: 김윤숙, 윤주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 **주일예배 및 토요 헵시바 전면 오픈 안내** 토요 헵시바와 주일예배를 전면 오픈 합니다. QR 코드 신청 없이 주일 예배와 헵시바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썸머타임(Daylight Savings Time) 해제** 다음 주일인 11월 7일(주일) 새벽 2시를 기준하여 2021년도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주일예배 참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새벽 2시가 1시로)

◆ **예배 후 즉시 출차 / 비전 주차장 주차**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베델 캠퍼스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즉시 출차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오전 5시 30분부터 비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비전 주차장에 주차 하시고 교회 셔틀을 타고 교회 오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셔틀은 오후 1시 30분 까지 운행을 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세례/입교식 및 유아세례식 안내** 다음 주일(11/7) 예배시에 성인세례 및 유아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예배시작 30분전까지 코트야드 앞 Check in 부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1.성인세례 및 입교식(11월 7일-주일 2부 예배 시)

- 문답일시 및 장소: 오늘 오후 12시 30분, 목회자실

2.유아세례식(11월 7일-주일 3부 예배 시)

문의: 왕동원 장로 (949)910-1584, 김형균 목사 (213)359-6000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11월 21일(주일)에 목장별 추수감사축제가 열립니다. 이 날 행사에는 온 교우들에게 터키만찬이 준비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에 베델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11월 21일(주일) 오후 4시, 본당

도네이션 문의: 우성무 집사 (714)713-5888

◆ **베델콰이어 & 베델오케스트라 모집** 팬데믹 후에 다가온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말씀으로 품고 예배하고자 공예배를 개편하는 일환으로 기존의 모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통합한 베델콰이어와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1부 예배를 섬기며 더욱 공교한 음악과 충만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찬양사역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원 자격/주중 연습시간: 세례교인, 매주 수요일 저녁

신청 기간/지원 방법: 10월 25일(월)-11월 5일(금), 월요일 오전 카톡채널 신청 링크

문의: 콰이어-박경철 목사 (949)774-9557, 오케스트라-박성규 집사 (714)423-8607

◆ **QTin 강좌 (4강)** 이 과정은 그룹별로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QTin 강좌를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아침 대용 간식이 준비됩니다.

일시/장소: 11월 6일(토) 헵시바기도회 후, 오전 7시 30분-9시, 비전채플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life@bkc.org

◆ **QTin 및 매일성경 판매** 11-12월 큐티인과 매일성경을 교회 카페에서 판매 합니다.

Bethel Announcements

◆ **QTin 영어 번역 자원 봉사자 모집** 베델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 큐티인 번역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아부부터 청소년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말씀으로 큐티할 2022년을 준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큐티인을 영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들의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정승락 목사 (714)512-1206, pauljeong@bkc.org

◆ **예살 새가족 환영회** 모든 예살 청년 새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새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순서와 맛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7일(주일) 저녁 5시, (구)식당

문의: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BYM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안내** BYM winter retreat를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알수 있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월 5일(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BYM 홈페이지 bethe1united.org/retreat

날짜/장소/대상: 12월 27일(월)-12월 29일(수), Irvine Ranch, 6-12학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교회학교 Family Fall Fest** 오늘 2021 Family Fall Fest가 있습니다. 이번 Fall Fest는 "Power Up With Jesus"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재미있는 말씀과 다양한 게임, 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5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체크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날짜/체크인 시간/대상: 10월 31일(주일), 오후 5시, 영유아-6학년, 소망부

◆ **Samaritan's Purse 캠페인** 매년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빈곤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슈박스를 만들어 보내는 사마리탄 퍼스 캠페인에 사인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본당 앞 부스에서 Shoe Box를 Drop해 주세요.

모집기간: 10월 3일(주일)-10월 31일(주일) 1-3부 예배 직후

문의: 최병웅 팀장 (714)586-6703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 분들을 찾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영아부,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 **축하해주세요**

김민수/이보라 집사 가정에 딸 김은별이 10월 28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박인준 장로님(박정민 전도사와 박선민 성도의 부친)이 10월 26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허국자 권사님(허용진 장로의 모친, 허미상 권사의 시모)께서 10월 26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Guarding Your Life

(Philippians 4:6–7)

- 1.** The Bible records that Apostle Paul was 'anxious'. Doesn't that contradict with today's passage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How would you answer that if someone asks? (Ref: 2Cor 11:28, Phil 2:20, Mat 6:30)

Apply to Life



- 2.** As you organize below lessons found in verses 6-7, share your blessings.

1) _____ (v.6)

2) _____ (v.6, Ref: 1Cor 10:13, Ro 8:28)

3) _____ (v.7, Ref: Prov. 4:23)

- 3.** Peace of God is promised to whom? (v.7) Share your list of worries as prayer list and give 'thanks'.
(Ref: Is 53:5, Jo 14:27)